

‘후후한 교사, 꿈틀거리는 아이들’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예배부

설교

여러분, 학교에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봤지만 선뜻 다가가지 못했던 순간이 있지 않나요? “괜히 끼어들면 어쩌지?”, “나도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선뜻 움직이지 못했던 경험에 있지 않나요? 우리도 사실 누군가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이 큰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를 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갑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귀찮아서, 위험해서, 혹은 자신에게 손해가 될까 봐 피했을지도 몰라요. 이 모습은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일어나죠. ‘모른 척’하는 것이 더 편하고 안전하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혹시 나도 위험해지지 않을까?”,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보다, ‘지금 이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해’라는 마음이 더 컸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친구를 볼 때가 있을 거예요. 따로 앉아 있는 친구, 힘들어 보이는데 말 못하는 친구. 그들에게 다가가는 일은 용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한 걸음 다가가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도망치는 대신, 멈춰 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세요. 가까이 가는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충일교회 가정예배부

예배 순서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기뻐해 다같이

말씀봉독 누가복음 10:25~37절 다같이

설교 가까이 가는 용기 설교자

말씀나눔 다같이

합심기도 다같이

축복기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도문 다같이

★ 찬송과 축복기도문과 말씀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양



☞ 찬양 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해주세요
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움 속에 있는 친구들을
보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가까이 다가가 사랑을 실천하는 용기를 주
옵소서. 작은 친절과 관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이 각각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 내가 요즘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웠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어떻게 한 걸음 더 다가가 볼 수 있을까요?